

오피니언

월/요/광/장

장택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조사에 의하면 광주지역 생계비는 서울의 65% 수준으로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낮다. 특히 주거비는 서울의 25%에 불과하며, 자녀교육비는 80% 정도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광주 고등학생의 수능성적은 해마다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도시로서 광주의 뜨거운 교육열 덕분일 것이다.

광주의 교육열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실시하고 있는 경제교육 실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의 경우 각각 1만여명의 광주지역 초등학생 및 중학생에 대하여 한국은행 직원이 학교현장을 방문하여 경제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 인원수는 광주지역 전체 초등학생의 9%, 중학생의 17%에 해당하는 수치로 한국은행 전국 지역본부 실적 중에서도 가장 높다.

유치원생들도 한국은행을 방문하여 화

폐전시설을 견학하고 경제교육도 받고 있는데, 그 수가 연간 3000여명으로 광주시 내 전체 유치원생수의 18%에 해당한다. 열심히 경청하는 유치원생들을 볼 때 마

광주 교육열을 지역발전 추진력으로

다 밝은 광주의 미래가 보인다. 이와 같이 높은 교육열은 학생들에게서만 그치지 않고 지역 상공인들에게서도 크게 느낄 수 있다. 매주 금요일 광주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하는 금요초찬포럼이 지난해말 1077회로 22년간 지속되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에서 매월 개최하는 광주경제포럼도 이번달 147회로 15년간 지속되고 있다. 참석할 때 마다 지역 상공인 및 경영자들의 넘치는 항학열을 크게 느낀다. 이러한 열정이 기업경영에 응용되

어 간접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학구열을 지역경제 발전에 직접 연결시킬 수 없을 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미국 뉴욕시의 경우 2002년 마이클 블룸버그시장이 취임한 이후 뉴욕의 범죄율이 떨어지고 도심 재개발이 본격화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시장 한 사람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뉴욕의 기업가 및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중심이 된 모임에서

뉴욕을 어떻게 하면 범죄가 없고, 깨끗한 도시로 만들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한 결과라고 들었다. 1970년대 범죄가 만연하여 인구가 줄어들고, 시 재정이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을 때 뉴욕을 문화 예술 관광 소풍 및 식도락의 도시로 탈바꿈하려는 노력이 시작됐다. 그 중심에는 '더 나은 뉴욕연합(AB-NY : Association for a Better New York)'이라는 회원수 300여명의 비영리 단체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매월 1~2 차례 우리와 비슷한 조건모임을 가지면서 뉴욕을 명품브랜드 도시로 만들려는 아이디어를 짜 모았다. 뉴욕 하면 떠오르는 'I'ON'Y'라는 디자인도 여기서 태동한 것이라고 한다. 문화·예술·관광의 도시로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현재의 광주 모습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 명품도시의 탄생이 시장 한 사람의 의지와 추진력으로 달성하기에는 힘이 부족할 수 있다. 취임 1년 반을 맞은 강안태 시장의 비전과 리더십에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인 지원이 더해져 진다면 광주의 미래는 더욱 밝을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사상 최대의 예산을 확보하였다고 하기는 하나, 앞으로라도 해마다 지역경제 발전의 추진력을 중앙정부의 운영에만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악순환 구조를 탈피하는 방안도 관 주도나 아닌 민간 주도의 모임에서 논의되고,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해 본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GO 칼럼



신일섭

원 아시아(One Asia)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다. 지나온 역사 속에서 꾸준히 그 모습을 드러내왔고, 심지어 실현된 적도 있다. 70여 년 전 건설된 몽골제국은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몽골은 서구문명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로마제국보다 훨씬 더 많은 땅과 사람을 다스렸다. 정기간의 몽골제국은 주위의 많은 문명을 연결하고 혼합하여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버림으로써 새로운 세계질서를 창조해냈다.

역사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제국은 정복

원 아시아(One Asia)를 위하여

한 지역에 자신들의 문명을 강요했다. 로마는 라틴어, 와인, 올리브유, 말농사 등을 정복지에 강요했다. 기후와 토양이 제각각이었지만 상관없었다. 그러나 몽골을 달랐다. 정복당한 사람들에게 종교, 사상을 강요하지 않았다. 치열한 전쟁중에도 종교, 사상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없었다. 또한 몽골의 동서교역로(silk road, step road)는 물자 뿐만 아니라 동서의 지식체계를 교환하고 거래하는 네트워크 구실을 했다. 몽골제국 이후 대부분의 아시아 통합 구상은 이렇다 할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20세기 초 청일,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아시아의 강자로 급속히 부상하는 국가였다. 역사적으로 대륙진출의 패권욕을 가지고 있었던 일본은 이를 계기로 일본의 대동

아제국 건설을 위한 시도를 계속하였다. 결국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대동아공영권'이라는 미명하에 침략자로 주변국들에게 되돌아갈 수 없는 고통만을 안겨주고 패전국으로 끝맺었다. 20세기 초부터 거론되었던 일본 내 아시아 통합론은 제국주의 망령이 덧씌워지면서 심하게 왜곡됐다. 중국에서도 현대 중국 건국의 아버지인 손문에 의해서 '대 아시아주의'가 주장되었다. 그는 "아시아 국가들이 친밀하게 결속하면 유럽의 강대민족에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아시아 인구는 9억 명이고, 유럽은 4억 명밖에 안 되는데, 아시아가 서구 유럽에게 꺾박당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뿐만 아니라 육지에서 '동양평화론'을 집필했던 한국(조선)의 세계평화주의자인 안중근 의사도 1910

년 동양평화론을 통해 '동아시아 공동체'론을 강조하였다. 그는 특히 한·중·일 3국 간 동양평화협약의체를 구성해 공동은행을 설립하고 공용화폐를 발행하는 동시에 공동평화군과 대륙을 창설하자고 역설했다.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에서 2003년 일본 동경에서 처음 출범한 '원 아시아 클럽(One Asia Club, 약칭 OAC)'은 일본, 중국, 한국, 몽골, 태국,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등 국제적인 민간단체 모임으로 "하나의 아시아"를 이상과 목표로 출발하였다. 아시아 각국 시민간의 친선교류, 문화교류, 경제교류를 통한 긴밀한 연대였다. 21세기 글로벌화와 정보화시대 유럽의 EU처럼 아시아도 민족과 국경, 이념, 종교의 경계를 넘어서 일반 시민의 자발적인 참가에 의한 "아시아 공동체"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하여 아시아 각국의 시민들이 국경과 민족을 넘어 자유롭게 교류하고 소통하며 아시아 대륙의 광활함과 풍요로움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려고 한 것이다. <호남대 교수·원아시아클럽 광주 회장>

기고



김용하

근래에 우리 사회에서 어린 청소년들의 자살사건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각종 폭력이 원인이 되어, 아까운 생명을 잃고 있음은 그 부모 등 당사자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 전체의 아픔으로 등장하고 있다. 오죽 견딜 수 없도록 시달리고 괴로웠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을까 생각하면 그것을 치유하지 못한 이 나라 누군들 자유로울 수가 있는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자살의 증가, 높은 교통사고율, 저출산 고령화 사회진입,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 소득의 양극화로 인한 계층갈등을 들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자살의 증가이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음에도 연이

자존의식 함양교육에 적극 나서자

터지는 사건으로 우리를 경악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살은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05년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26.1명이었던 것이 2011년 31.2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매일 평균 42.6명이 자살하여, OECD 27개국 평균의 2배 이상이며, 순위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나이 어린 청소년들의 자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청소년상담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자살충동을 경험했고, 이 가운데 20여%는 구체적으로 자살방법까지 생각해본다고 한다. 우리 사회가 2만 불 시대에 진입하여, 무역 1조 원으로서, 세계 9위권에 이르는 경제적 향상을 기하고 있고,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극단적인 행동이 증가하는 까닭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것은 물질적인 풍요속에 갈수록 더해 가는 자기 욕망의 증진과 인터넷 등 전자기기의 역작용으로

남과의 소통이 없는 "나만의 홀로 세계" 등 극도의 개인주의적 성향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한다. 또한 폭력의 피해나 남으로부터 받은 멸시, 인터넷에서 악플로 인해 상처를 입은 것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폭력적이고 선정적 영상 시청을 기하고, 복지기구를 지향하고 있는 문화적 현상도 자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자기통제력이 부족하여, 한순간에 충동적으로 일으키는 극단적인 사태는 전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을 제대로 구제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비슷한 상태에서 모방자살 같은 '자살 도미노' 즉 '베르테르 효과' 우려된다. 이제 모든 국가의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자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총체

적인 구조의 문제로 인식을 개선하여,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우선 자존(自尊)의식을 길러야 한다. 자기가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절대적인 존재임을 확실히 각인시키고, 나아가 내 곁의 남도 그러한 소중한 절대가치를 가진 사람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인권존중의 가치관정립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생명사랑 캠페인을 전개하고, 자살예방상담, 유해사이트 모니터링 등 자살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초대 시민직선 장우국교육감이 이끄는 광주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과 혁신학교 등을 만들어, 학생이 "행복한 교육,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민주시민 육성" 등을 교육의 지표로 삼고, 학생과의 소통과 배려를 우선시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시책이라 할 것이다. 다만, 제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주의와 교육청차원의 학생교육만이 아니라, 학부모를 비롯한 사회 전체에 인간사랑과 존중의 마음이 거친 관료 속에 깊이 내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인문 철학적 소양교육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민주적 시민질서 등이 생활화 되도록 하여, 실질적 효과가 거망될 수 있도록 투단의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신인·광주·국립중등교육장 협의회 회장>

고령사회 정년 연장하고 노인 일자리 늘려야

사회학적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그리고 14%를 넘으면 고령사회라 한다.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18년 만에 고령사회로 들어갈까 되는 것이다. 이제 앞으로 남은 8년간 우리가 고령 사회에 대비해 무슨 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정부와 국민, 복지를 연구하는 학자들과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본다. 그 첫 번째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수명 연장에 따른 정년 연장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두말할 것 없이 여전히 일하고 싶은 욕구가 필립 끊어 넘치는 60대 청년 같은 노인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 70대

는 노인이라고 부르기조차 애매한 정도다. 한창 일할 나이인 50대 중반에 이미 정년을 맞아 회사를 떠난 젊은 노인들의 실태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그뿐 아니라 요즘은 사소정교 오락도는 기본이라 40~50대 초반에 퇴직한 사람들도 부지기수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 같다. 청춘을 바쳤던 회사에서 정년도 채우지 못하고, 실업 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현실이 더없이 씁쓸하다. 이미 다 기계화 시스템이 구축되어 인원이 감축되고, 최장 8개월 동안 지급되는 실업 급여 기간 동안 열심히 새 직장을 찾아다녀 보지만 여의치가 않다. 필자의 형님도 50대 초반인데 벌써 1년

전에 회사에서 나온 뒤 수십 군데씩 업체에 지원서를 내봤지만, 모두 채용을 거절당했다. 거의 30년간 직장생활을 했지만 도중에 몇 군데 옮겨서 퇴직금도 많지 않고, 저축도 그나마 뒤늦게 구입한 주택 대출금을 갚는데 대부분 사용해 현금도 많지도 않은 상태다. 당장 4대 보험도 해결 못 하는 어려운 상황이 돌아오고, 아직 자녀의 교육과 결혼 문

제를 책임지고 집안의 든든한 기둥이어야 할 50대가 이렇게 처량하게 버티는 상황이다. 고령사회 진입을 그냥 세월에 맡기고 구경만 할 게 아니라 정부가 정년연장과 노인 일자리 만들기 등에 더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김원준·광주시 광산구 삼거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

시설

한·중 FTA 협상보다 농업대책이 먼저다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개시된다는 소식에 전남지역 농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미 FTA로 축산분야의 직격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중 FTA까지 체결돼 값싼 중국 농산물 물이 밀려올 경우 전남 농촌의 붕괴가 불 보듯하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인용, 한·중 FTA 발효시 15년간 국내 농산물 생산감소는 4조9632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생산감소액(26조1222억 원)의 19%에 해당된다. 문제는 농업의 전 분야로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미 FTA 농업피해 대책도 지지부진한 마당에 그보다 훨씬 파고 큰 한·중 FTA까지 체결된다면 우리 농촌은 그야말로 초토화될 수밖에 없다. 농민들이 한·중 FTA를 성급하게 체결해서는 안되며, 농업피해 대책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 농업이 국제적으로 비교 열위인 산업인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농업은 어느 나라든 식량안보 차원의 국가 기반 산업이다. 정부는 한·중 FTA 피해를 최소화할 안중장치를 만들고, 농산물은 관세 철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치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경제 규모 세계 2위인 중국은 우리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다. 지난해 대중 수출은 전체의 24.2%인 1298억 달러로 미국과 유럽연합(EU) 수출을 합친 것보다 많다. 게다가 미국·EU에 이어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맺는 첫 국가가 된다. 하지만, 가격경쟁력이 뒤지는 농업 등 분야의 타격이 기존 FTA보다 훨씬 크다는 게 문제다. 중국 농산물은 한국 산에 비해 가격차가 최대 15배에 이르러, 품질·품질도 비슷하다. 실제, 한·중 FTA 발효 10년이 되면 곡물류 37%, 채소·특용작물 36% 등의 생산감소가 불가피하다. 우리 농업이 국제적으로 비교 열위인 산업인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농업은 어느 나라든 식량안보 차원의 국가 기반 산업이다. 정부는 한·중 FTA 피해를 최소화할 안중장치를 만들고, 농산물은 관세 철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치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정부, 고속철도 민영화 방침 당장 철회하라

정부가 반대 여론이 비등한 고속철도(KTX) 분할 민영화 방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민단체와 야당이 이어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일 태세다. KTX 민영화 논란은 국토해양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보고에서 철도산업의 서비스 개선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는 철도운영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건설 중인 수도권과 호남고속철도 KTX가 완공돼 운영되는 2015년 1월 수서발 경부선과 호남선이 우선 검토 대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비대위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와 반대가 크며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민주통합당도 이미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한결같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국민의 발'인 철도의 공공성 훼손이 불

보듯 변하기 때문이다. 민영화 대상인 KTX는 코레일 노선 가운데 경쟁력이 가장 높아 3000억 원의 흑자를 내고 있다. 특히 코레일은 KTX의 수익을 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일반철도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그런데도 흑자노선만 민간에 넘겨 경쟁구도를 갖추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 경쟁이 안 되는 적자노선은 운영이 어려워진다. 서비스와 안전성 저하는 물론 요금도 크게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14조 원의 나랏돈으로 시실을 갖춘 '알짜배기'만 민간에 넘기는 것으로, 특히 시비를 부를 소지도 크다. 정부는 KTX의 민영화 방침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사안을, 더구나 임기가 1년도 안 남은 시점에서 강행하는 것은 결코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없다. 한나라당 비대위도 반대 입장을 표명한 만큼 당론으로 채택해 이를 막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전통적으로 정치 지도자가 갖춰야 할 자질로는 전문성과 도덕성, 리더십 등이 꼽혀왔다. 전문성은 특정한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 탁월한 능력을 가리킨다. 선거철이면 고위 관료나 기업 및 단체의 최고경영자(CEO), 전문직, 의원 출신 후보가 다수 등장하고 이들 상당수가 선출직에 진출하는 배경이다. 도덕성은 일반인의 모범이 될 만한 청렴성과 정직함으로 대변된다. 리더십에는 도전과 응전의 위기 돌파력과 통찰력을 기반으로 한 비전 제시 능력도 포함된다. 하지만 최근 유권자들은 이들 미덕만으론 믿기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자질은 소통하는 능력이다. 언론사의 새해 대신 여론조사에서 '국민과의 소통능력'이 '국가경쟁 능력'보다 앞선 것이 이를 방증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포용할 줄 아는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 도구로는 공간의 장벽을 넘어 어디서든 정보를 즉시 공유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꼽힌다. 지난해 '아랍의 봄'을 불러왔고 반(反)월가 시위대의 '무기'였으며, 국내에서는 대한 해박한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 탁월한 능력을 가리킨다. 선거철이면 고위 관료나 기업 및 단체의 최고경영자(CEO), 전문직, 의원 출신 후보가 다수 등장하고 이들 상당수가 선출직에 진출하는 배경이다. 도덕성은 일반인의 모범이 될 만한 청렴성과 정직함으로 대변된다. 리더십에는 도전과 응전의 위기 돌파력과 통찰력을 기반으로 한 비전 제시 능력도 포함된다. 하지만 최근 유권자들은 이들 미덕만으론 믿기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자질은 소통하는 능력이다. 언론사의 새해 대신 여론조사에서 '국민과의 소통능력'이 '국가경쟁 능력'보다 앞선 것이 이를 방증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포용할 줄 아는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 도구로는 공간의 장벽을 넘어 어디서든 정보를 즉시 공유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꼽힌다. 지난해 '아랍의 봄'을 불러왔고 반(反)월가 시위대의 '무기'였으며, 국내에서는 대한 해박한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 탁월한 능력을 가리킨다. 선거철이면 고위 관료나 기업 및 단체의 최고경영자(CEO), 전문직, 의원 출신 후보가 다수 등장하고 이들 상당수가 선출직에 진출하는 배경이다. 도덕성은 일반인의 모범이 될 만한 청렴성과 정직함으로 대변된다. 리더십에는 도전과 응전의 위기 돌파력과 통찰력을 기반으로 한 비전 제시 능력도 포함된다. 하지만 최근 유권자들은 이들 미덕만으론 믿기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자질은 소통하는 능력이다. 언론사의 새해 대신 여론조사에서 '국민과의 소통능력'이 '국가경쟁 능력'보다 앞선 것이 이를 방증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포용할 줄 아는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 도구로는 공간의 장벽을 넘어 어디서든 정보를 즉시 공유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꼽힌다. 지난해 '아랍의 봄'을 불러왔고 반(反)월가 시위대의 '무기'였으며, 국내에서는 대한 해박한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 탁월한 능력을 가리킨다. 선거철이면 고위 관료나 기업 및 단체의 최고경영자(CEO), 전문직, 의원 출신 후보가 다수 등장하고 이들 상당수가 선출직에 진출하는 배경이다. 도덕성은 일반인의 모범이 될 만한 청렴성과 정직함으로 대변된다. 리더십에는 도전과 응전의 위기 돌파력과 통찰력을 기반으로 한 비전 제시 능력도 포함된다. 하지만 최근 유권자들은 이들 미덕만으론 믿기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자질은 소통하는 능력이다. 언론사의 새해 대신 여론조사에서 '국민과의 소통능력'이 '국가경쟁 능력'보다 앞선 것이 이를 방증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포용할 줄 아는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 도구로는 공간의 장벽을 넘어 어디서든 정보를 즉시 공유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꼽힌다. 지난해 '아랍의 봄'을 불러왔고 반(反)월가 시위대의 '무기'였으며, 국내에서는 대한 해박한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 탁월한 능력을 가리킨다. 선거철이면 고위 관료나 기업 및 단체의 최고경영자(CEO), 전문직, 의원 출신 후보가 다수 등장하고 이들 상당수가 선출직에 진출하는 배경이다. 도덕성은 일반인의 모범이 될 만한 청렴성과 정직함으로 대변된다. 리더십에는 도전과 응전의 위기 돌파력과 통찰력을 기반으로 한 비전 제시 능력도 포함된다. 하지만 최근 유권자들은 이들 미덕만으론 믿기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자질은 소통하는 능력이다. 언론사의 새해 대신 여론조사에서 '국민과의 소통능력'이 '국가경쟁 능력'보다 앞선 것이 이를 방증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포용할 줄 아는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 도구로는 공간의 장벽을 넘어 어디서든 정보를 즉시 공유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꼽힌다. 지난해 '아랍의 봄'을 불러왔고 반(反)월가 시위대의 '무기'였으며, 국내에서는 대한 해박한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 탁월한 능력을 가리킨다. 선거철이면 고위 관료나 기업 및 단체의 최고경영자(CEO), 전문직, 의원 출신 후보가 다수 등장하고 이들 상당수가 선출직에 진출하는 배경이다. 도덕성은 일반인의 모범이 될 만한 청렴성과 정직함으로 대변된다. 리더십에는 도전과 응전의 위기 돌파력과 통찰력을 기반으로 한 비전 제시 능력도 포함된다. 하지만 최근 유권자들은 이들 미덕만으론 믿기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자질은 소통하는 능력이다. 언론사의 새해 대신 여론조사에서 '국민과의 소통능력'이 '국가경쟁 능력'보다 앞선 것이 이를 방증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포용할 줄 아는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 도구로는 공간의 장벽을 넘어 어디서든 정보를 즉시 공유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꼽힌다. 지난해 '아랍의 봄'을 불러왔고 반(反)월가 시위대의 '무기'였으며, 국내에서는 대한 해박한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 탁월한 능력을 가리킨다. 선거철이면 고위 관료나 기업 및 단체의 최고경영자(CEO), 전문직, 의원 출신 후보가 다수 등장하고 이들 상당수가 선출직에 진출하는 배경이다. 도덕성은 일반인의 모범이 될 만한 청렴성과 정직함으로 대변된다. 리더십에는 도전과 응전의 위기 돌파력과 통찰력을 기반으로 한 비전 제시 능력도 포함된다. 하지만 최근 유권자들은 이들 미덕만으론 믿기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자질은 소통하는 능력이다. 언론사의 새해 대신 여론조사에서 '국민과의 소통능력'이 '국가경쟁 능력'보다 앞선 것이 이를 방증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포용할 줄 아는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 도구로는 공간의 장벽을 넘어 어디서든 정보를 즉시 공유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꼽힌다. 지난해 '아랍의 봄'을 불러왔고 반(反)월가 시위대의 '무기'였으며, 국내에서는 대한 해박한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 탁월한 능력을 가리킨다. 선거철이면 고위 관료나 기업 및 단체의 최고경영자(CEO), 전문직, 의원 출신 후보가 다수 등장하고 이들 상당수가 선출직에 진출하는 배경이다. 도덕성은 일반인의 모범이 될 만한 청렴성과 정직함으로 대변된다. 리더십에는 도전과 응전의 위기 돌파력과 통찰력을 기반으로 한 비전 제시 능력도 포함된다. 하지만 최근 유권자들은 이들 미덕만으론 믿기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자질은 소통하는 능력이다. 언론사의 새해 대신 여론조사에서 '국민과의 소통능력'이 '국가경쟁 능력'보다 앞선 것이 이를 방증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포용할 줄 아는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 도구로는 공간의 장벽을 넘어 어디서든 정보를 즉시 공유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꼽힌다. 지난해 '아랍의 봄'을 불러왔고 반(反)월가 시위대의 '무기'였으며, 국내에서는 대한 해박한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 탁월한 능력을 가리킨다. 선거철이면 고위 관료나 기업 및 단체의 최고경영자(CEO), 전문직, 의원 출신 후보가 다수 등장하고 이들 상당수가 선출직에 진출하는 배경이다. 도덕성은 일반인의 모범이 될 만한 청렴성과 정직함으로 대변된다. 리더십에는 도전과 응전의 위기 돌파력과 통찰력을 기반으로 한 비전 제시 능력도 포함된다. 하지만 최근 유권자들은 이들 미덕만으론 믿기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자질은 소통하는 능력이다. 언론사의 새해 대신 여론조사에서 '국민과의 소통능력'이 '국가경쟁 능력'보다 앞선 것이 이를 방증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포용할 줄 아는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 도구로는 공간의 장벽을 넘어 어디서든 정보를 즉시 공유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꼽힌다. 지난해 '아랍의 봄'을 불러왔고 반(反)월가 시위대의 '무기'였으며, 국내에서는 대한 해박한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 탁월한 능력을 가리킨다. 선거철이면 고위 관료나 기업 및 단체의 최고경영자(CEO), 전문직, 의원 출신 후보가 다수 등장하고 이들 상당수가 선출직에 진출하는 배경이다. 도덕성은 일반인의 모범이 될 만한 청렴성과 정직함으로 대변된다. 리더십에는 도전과 응전의 위기 돌파력과 통찰력을 기반으로 한 비전 제시 능력도 포함된다. 하지만 최근 유권자들은 이들 미덕만으론 믿기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자질은 소통하는 능력이다. 언론사의 새해 대신 여론조사에서 '국민과의 소통능력'이 '국가경쟁 능력'보다 앞선 것이 이를 방증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포용할 줄 아는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 도구로는 공간의 장벽을 넘어 어디서든 정보를 즉시 공유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꼽힌다. 지난해 '아랍의 봄'을 불러왔고 반(反)월가 시위대의 '무기'였으며, 국내에서는 대한 해박한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 탁월한 능력을 가리킨다. 선거철이면 고위 관료나 기업 및 단체의 최고경영자(CEO), 전문직, 의원 출신 후보가 다수 등장하고 이들 상당수가 선출직에 진출하는 배경이다. 도덕성은 일반인의 모범이 될 만한 청렴성과 정직함으로 대변된다. 리더십에는 도전과 응전의 위기 돌파력과 통찰력을 기반으로 한 비전 제시 능력도 포함된다. 하지만 최근 유권자들은 이들 미덕만으론 믿기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자질은 소통하는 능력이다. 언론사의 새해 대신 여론조사에서 '국민과의 소통능력'이 '국가경쟁 능력'보다 앞선 것이 이를 방증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포용할 줄 아는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 도구로는 공간의 장벽을 넘어 어디서든 정보를 즉시 공유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꼽힌다. 지난해 '아랍의 봄'을 불러왔고 반(反)월가 시위대의 '무기'였으며, 국내에서는 대한 해박한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 탁월한 능력을 가리킨다. 선거철이면 고위 관료나 기업 및 단체의 최고경영자(CEO), 전문직, 의원 출신 후보가 다수 등장하고 이들 상당수가 선출직에 진출하는 배경이다. 도덕성은 일반인의 모범이 될 만한 청렴성과 정직함으로 대변된다. 리더십에는 도전과 응전의 위기 돌파력과 통찰력을 기반으로 한 비전 제시 능력도 포함된다. 하지만 최근 유권자들은 이들 미덕만으론 믿기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자질은 소통하는 능력이다. 언론사의 새해 대신 여론조사에서 '국민과의 소통능력'이 '국가경쟁 능력'보다 앞선 것이 이를 방증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포용할 줄 아는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 도구로는 공간의 장벽을 넘어 어디서든 정보를 즉시 공유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꼽힌다. 지난해 '아랍의 봄'을 불러왔고 반(反)월가 시위대의 '무기'였으며, 국내에서는 대한 해박한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 탁월한 능력을 가리킨다. 선거철이면 고위 관료나 기업 및 단체의 최고경영자(CEO), 전문직, 의원 출신 후보가 다수 등장하고 이들 상당수가 선출직에 진출하는 배경이다. 도덕성은 일반인의 모범이 될 만한 청렴성과 정직함으로 대변된다. 리더십에는 도전과 응전의 위기 돌파력과 통찰력을 기반으로 한 비전 제시 능력도 포함된다. 하지만 최근 유권자들은 이들 미덕만으론 믿기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자질은 소통하는 능력이다. 언론사의 새해 대신 여론조사에서 '국민과의 소통능력'이 '국가경쟁 능력'보다 앞선 것이 이를 방증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포용할 줄 아는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 도구로는 공간의 장벽을 넘어 어디서든 정보를 즉시 공유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꼽힌다. 지난해 '아랍의 봄'을 불러왔고 반(反)월가 시위대의 '무기'였으며, 국내에서는 대한 해박한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 탁월한 능력을 가리킨다. 선거철이면 고위 관료나 기업 및 단체의 최고경영자(CEO), 전문직, 의원 출신 후보가 다수 등장하고 이들 상당수가 선출직에 진출하는 배경이다. 도덕성은 일반인의 모범이 될 만한 청렴성과 정직함으로 대변된다. 리더십에는 도전과 응전의 위기 돌파력과 통찰력을 기반으로 한 비전 제시 능력도 포함된다. 하지만 최근 유권자들은 이들 미덕만으론 믿기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자질은 소통하는 능력이다. 언론사의 새해 대신 여론조사에서 '국민과의 소통능력'이 '국가경쟁 능력'보다 앞선 것이 이를 방증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포용할 줄 아는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 도구로는 공간의 장벽을 넘어 어디서든 정보를 즉시 공유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꼽힌다. 지난해 '아랍의 봄'을 불러왔고 반(反)월가 시위대의 '무기'였으며, 국내에서는 대한 해박한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 탁월한 능력을 가리킨다. 선거철이면 고위 관료나 기업 및 단체의 최고경영자(CEO), 전문직, 의원 출신 후보가 다수 등장하고 이들 상당수가 선출직에 진출하는 배경이다. 도덕성은 일반인의 모범이 될 만한 청렴성과 정직함으로 대변된다. 리더십에는 도전과 응전의 위기 돌파력과 통찰력을 기반으로 한 비전 제시 능력도 포함된다. 하지만 최근 유권자들은 이들 미덕만으론 믿기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자질은 소통하는 능력이다. 언론사의 새해 대신 여론조사에서 '국민과의 소통능력'이 '국가경쟁 능력'보다 앞선 것이 이를 방증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포용할 줄 아는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 도구로는 공간의 장벽을 넘어 어디서든 정보를 즉시 공유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꼽힌다. 지난해 '아랍의 봄'을 불러왔고 반(反)월가 시위대의 '무기'였으며, 국내에서는 대한 해박한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 탁월한 능력을 가리킨다. 선거철이면 고위 관료나 기업 및 단체의 최고경영자(CEO), 전문직, 의원 출신 후보가 다수 등장하고 이들 상당수가 선출직에 진출하는 배경이다. 도덕성은 일반인의 모범이 될 만한 청렴성과 정직함으로 대변된다. 리더십에는 도전과 응전의 위기 돌파력과 통찰력을 기반으로 한 비전 제시 능력도 포함된다. 하지만 최근 유권자들은 이들 미덕만으론 믿기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자질은 소통하는 능력이다. 언론사의 새해 대신 여론조사에서 '국민과의 소통능력'이 '국가경쟁 능력'보다 앞선 것이 이를 방증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포용할 줄 아는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 도구로는 공간의 장벽을 넘어 어디서든 정보를 즉시 공유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꼽힌다. 지난해 '아랍의 봄'을 불러왔고 반(反)월가 시위대의 '무기'였으며, 국내에서는 대한 해박한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 탁월한 능력을 가리킨다. 선거철이면 고위 관료나 기업 및 단체의 최고경영자(CEO), 전문직, 의원 출신 후보가 다수 등장하고 이들 상당수가 선출직에 진출하는 배경이다. 도덕성은 일반인의 모범이 될 만한 청렴성과 정직함으로 대변된다. 리더십에는 도전과 응전의 위기 돌파력과 통찰력을 기반으로 한 비전 제시 능력도 포함된다. 하지만 최근 유권자들은 이들 미덕만으론 믿기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자질은 소통하는 능력이다. 언론사의 새해 대신 여론조사에서 '국민과의 소통능력'이 '국가경쟁 능력'보다 앞선 것이 이를 방증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포용할 줄 아는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 도구로는 공간의 장벽을 넘어 어디서든 정보를 즉시 공유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꼽힌다. 지난해 '아랍의 봄'을 불러왔고 반(反)월가 시위대의 '무기'였으며, 국내에서는 대한 해박한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 탁월한 능력을 가리킨다. 선거철이면 고위 관료나 기업 및 단체의 최고경영자(CEO), 전문직, 의원 출신 후보가 다수 등장하고 이들 상당수가 선출직에 진출하는 배경이다. 도덕성은 일반인의 모범이 될 만한 청렴성과 정직함으로 대변된다. 리더십에는 도전과 응전의 위기 돌파력과 통찰력을 기반으로 한 비전 제시 능력도 포함된다. 하지만 최근 유권자들은 이들 미덕만으론 믿기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자질은 소통하는 능력이다. 언론사의 새해 대신 여론조사에서 '국민과의 소통능력'이 '국가경쟁 능력'보다 앞선 것이 이를 방증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포용할 줄 아는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 도구로는 공간의 장벽을 넘어 어디서든 정보를 즉시 공유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꼽힌다. 지난해 '아랍의 봄'을 불러왔고 반(反)월가 시위대의 '무기'였으며, 국내에서는 대한 해박한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 탁월한 능력을 가리킨다. 선거철이면 고위 관료나 기업 및 단체의 최고경영자(CEO), 전문직, 의원 출신 후보가 다수 등장하고 이들 상당수가 선출직에 진출하는 배경이다. 도덕성은 일반인의 모범이 될 만한 청렴성과 정직함으로 대변된다. 리더십에는 도전과 응전의 위기 돌파력과 통찰력을 기반으로 한 비전 제시 능력도 포함된다. 하지만 최근 유권자들은 이들 미덕만으론 믿기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자질은 소통하는 능력이다. 언론사의 새해 대신 여론조사에서 '국민과의 소통능력'이 '국가경쟁 능력'보다 앞선 것이 이를 방증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포용할 줄 아는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 도구로는 공간의 장벽을 넘어 어디서든 정보를 즉시 공유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꼽힌다. 지난해 '아랍의 봄'을 불러왔고 반(反)월가 시위대의 '무기'였으며, 국내에서는 대한 해박한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 탁월한 능력을 가리킨다. 선거철이면 고위 관료나 기업 및 단체의 최고경영자(CEO), 전문직, 의원 출신 후보가 다수 등장하고 이들 상당수가 선출직에 진출하는 배경이다. 도덕성은 일반인의 모범이 될 만한 청렴성과 정직함으로 대변된다. 리더십에는 도전과 응전의 위기 돌파력과 통찰력을 기반으로 한 비전 제시 능력도 포함된다. 하지만 최근 유권자들은 이들 미덕만으론 믿기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자질은 소통하는 능력이다. 언론사의 새해 대신 여론조사에서 '국민과의 소통능력'이 '국가경쟁 능력'보다 앞선 것이 이를 방증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포용할 줄 아는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 도구로는 공간의 장벽을 넘어 어디서든 정보를 즉시 공유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꼽힌다. 지난해 '아랍의 봄'을 불러왔고 반(反)월가 시위대의 '무기'였으며, 국내에서는 대한 해박한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 탁월한 능력을 가리킨다. 선거철이면 고위 관료나 기업 및 단체의 최고경영자(CEO), 전문직, 의원 출신 후보가 다수 등장하고 이들 상당수가 선출직에 진출하는 배경이다. 도덕성은 일반인의 모범이 될 만한 청렴성과 정직함으로 대변된다. 리더십에는 도전과 응전의 위기 돌파력과 통찰력을 기반으로 한 비전 제시 능력도 포함된다. 하지만 최근 유권자들은 이들 미덕만으론 믿기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자질은 소통하는 능력이다. 언론사의 새해 대신 여론조사에서 '국민과의 소통능력'이 '국가경쟁 능력'보다 앞선 것이 이를 방증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포용할 줄 아는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 도구로는 공간의 장벽을 넘어 어디서든 정보를 즉시 공유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꼽힌다. 지난해 '아랍의 봄'을 불러왔고 반(反)월가 시위대의 '무기'였으며, 국내에서는 대한 해박한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 탁월한 능력을 가리킨다. 선거철이면 고위 관료나 기업 및 단체의 최고경영자(CEO), 전문직, 의원 출신 후보가 다수 등장하고 이들 상당수가 선출직에 진출하는 배경이다. 도덕성은 일반인의 모범이 될 만한 청렴성과 정직함으로 대변된다. 리더십에는 도전과 응전의 위기 돌파력과 통찰력을 기반으로 한 비전 제시 능력도 포함된다. 하지만 최근 유권자들은 이들 미덕만으론 믿기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자질은 소통하는 능력이다. 언론사의 새해 대신 여론조사에서 '국민과의 소통능력'이 '국가경쟁 능력'보다 앞선 것이 이를 방증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포용할 줄 아는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 도구로는 공간의 장벽을 넘어 어디서든 정보를 즉시 공유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꼽힌다. 지난해 '아랍의 봄'을 불러왔고 반(反)월가 시위대의 '무기'였으며, 국내에서는 대한 해박한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 탁월한 능력을 가리킨다. 선거철이면 고위 관료나 기업 및 단체의 최고경영자(CEO), 전문직, 의원 출신 후보가 다수 등장하고 이들 상당수가 선출직에 진출하는 배경이다. 도덕성은 일반인의 모범이 될 만한 청렴성과 정직함으로 대변된다. 리더십에는 도전과 응전의 위기 돌파력과 통찰력을 기반으로 한 비전 제시 능력도 포함된다. 하지만 최근 유권자들은 이들 미덕만으론 믿기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자질은 소통하는 능력이다. 언론사의 새해 대신 여론조사에서 '국민과의 소통능력'이 '국가경쟁 능력'보다 앞선 것이 이를 방증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포용할 줄 아는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 도구로는 공간의 장벽을 넘어 어디서든 정보를 즉시 공유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꼽힌다. 지난해 '아랍의 봄'을 불러왔고 반(反)월가 시위대의 '무기'였으며, 국내에서는 대한 해박한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 탁월한 능력을 가리킨다. 선거철이면 고위 관료나 기업 및 단체의 최고경영자(CEO), 전문직, 의원 출신 후보가 다수 등장하고 이들 상당수가 선출직에 진출하는 배경이다. 도덕성은 일반인의 모범이 될 만한 청렴성과 정직함으로 대변된다. 리더십에는 도전과 응전의 위기 돌파력과 통찰력을 기반으로 한 비전 제시 능력도 포함된다. 하지만 최근 유권자들은 이들 미덕만으론 믿기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자질은 소통하는 능력이다. 언론사의 새해 대신 여론조사에서 '국민과의 소통능력'이 '국가경쟁 능력'보다 앞선 것이 이를 방증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포용할 줄 아는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 도구로는 공간의 장벽을 넘어 어디서든 정보를 즉시 공유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꼽힌다. 지난해 '아랍의 봄'을 불러왔고 반(反)월가 시위대의 '무기'였으며, 국내에서는 대한 해박한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 탁월한 능력을 가리킨다. 선거철이면 고위 관료나 기업 및 단체의 최고경영자(CEO), 전문직, 의원 출신 후보가 다수 등장하고 이들 상당수가 선출직에 진출하는 배경이다. 도덕성은 일반인의 모범이 될 만한 청렴성과 정직함으로 대변된다. 리더십에는 도전과 응전의 위기 돌파력과 통찰력을 기반으로 한 비전 제시 능력도 포함된다. 하지만 최근 유권자들은 이들 미덕만으론 믿기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자질은 소통하는 능력이다. 언론사의 새해 대신 여론조사에서 '국민과의 소통능력'이 '국가경쟁 능력'보다 앞선 것이 이를 방증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포용할 줄 아는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 도구로는 공간의 장벽을 넘어 어디서든 정보를 즉시 공유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꼽힌다. 지난해 '아랍의 봄'을 불러왔고 반(反)월가 시위대의 '무기'였으며, 국내에서는 대한 해박한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 탁월한 능력을 가리킨다. 선거철이면 고위 관료나 기업 및 단체의 최고경영자(CEO), 전문직, 의원 출신 후보가 다수 등장하고 이들 상당수가 선출직에 진출하는 배경이다. 도덕성은 일반인의 모범이 될 만한 청렴성과 정직함으로 대변된다. 리더십에는 도전과 응전의 위기 돌파력과 통찰력을 기반으로 한 비전 제시 능력도 포함된다